



미 증시, CPI 예상치 상회에도 반등에 성공

미국 증시 리뷰

12 일(화) 미국 증시는 CPI 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하락 출발했지만, 선반영 인식 및 주거비 상승폭 축소에 주목하며 결과를 소화하는 가운데 오라클 호실적에 힘입어 AI 관련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 (다우 +0.61%, S&P500 +1.12%, 나스닥 +1.54%). 업종별로 IT(+2.5%), 통신(+1.2%), 경기소비재(+1%) 강세, 유틸리티(-1%), 부동산(-0.4%), 에너지(-0.2%)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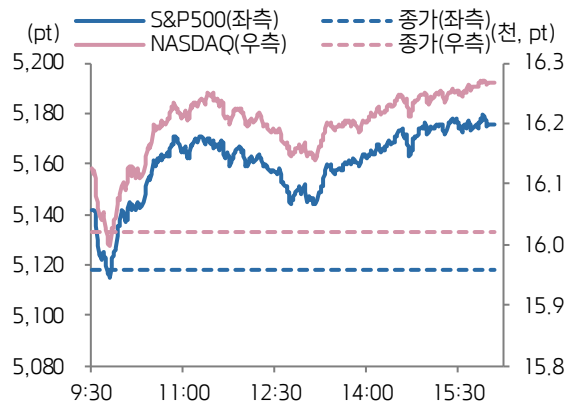
2월 CPI YOY 3.2%(예상 3.1%, 전월 3.1%), MOM 0.4%(예상 0.4%, 전월 0.3%), 근원 CPI YOY 3.8%(예상 3.7, 전월 3.9%), MOM 0.4%(예상 0.3%, 전월 0.4%) 로 예상치 소폭 상회. 주거비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물가인 슈퍼코어 CPI 는 YOY 4.3%, MOM 0.47% (전월 0.85%) 기록.

세부 항목별로 MOM 연료비 -3.2% -> 0.7%, 가솔린 -3.3% -> 3.7% 등 에너지 -0.9%-> +2.3%, 중고차 -3.4% -> 0.5% 가 상승했으나, 주거비가 0.6% -> 0.4%로 상승폭을 축소.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의 가치를 추정하는 척도인 소유자 등가 임대료(OER) 상승률이 전월 0.6% -> 0.4%로 하락한 점이 안도 요인. 또한 실질 시간당 평균 소득 YOY 1.1% (전월 1.3%), 실질 주당 평균 소득 0.5%(전월 0.1%) 증가하여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증가했음을 시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경제계 우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과 강도 높은 무역전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관세는 경제를 넘어 외국과 협상할 때 힘을 준다"며 고율 관세 부과가 정치적인 이득도 가져온다고 주장.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2 기 출범 시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에 더해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 또한 재집권 시 대중국 관세율을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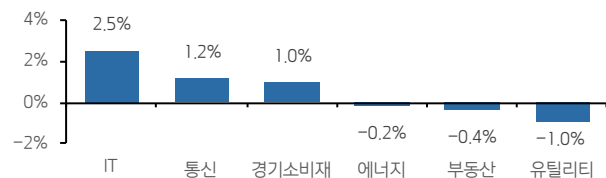
오라클(11%)은 4 분기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이 약 50% 성장한 18 억달러로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출을 넘어서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매출은 33 억달러로 14% 증가했다고 발표. AI 인프라 수요에 힘입어 클라우드 관련 매출은 24% 증가했으며 1 분기 22%~24%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존 기업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 구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에 주가 급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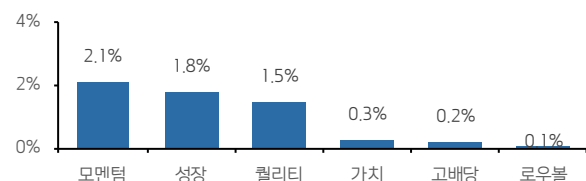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81.81	+0.83%	USD/KRW	1,310.80	+0.05%
코스피 200	361.11	+0.77%	달러 지수	102.96	+0.09%
코스닥	889.71	+1.57%	EUR/USD	1.09	+0%
코스닥 150	1,483.71	+2.2%	USD/CNH	7.19	+0.01%
S&P500	5,175.27	+1.12%	USD/JPY	147.59	-0.06%
NASDAQ	16,265.64	+1.54%	채권시장		
다우	39,005.49	+0.61%	국고채 3년	3.270	-0.5bp
VIX	13.84	-9.07%	국고채 10년	3.333	-1.4bp
러셀 2000	2,065.48	-0.02%	미국 국채 2년	4.586	+5bp
필라. 반도체	4,992.51	+2.09%	미국 국채 10년	4.151	+5.2bp
다우 운송	15,882.29	+0.61%	미국 국채 30년	4.312	+5.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83.20	+1.07%	WTI	77.99	+0.55%
MSCI 전세계 지수	775.71	+0.9%	브렌트유	81.92	-0.35%
MSCI DM 지수	3,397.25	+0.9%	금	2164.4	-0.08%
MSCI EM 지수	1,049.07	+0.96%	은	24.19	-1.3%
MSCI 한국 ETF	67.22	+1.49%	구리	392.5	+0.0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9.8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2월 CPI 쇼크를 중립 이상으로 소화한 미국 증시 강세 효과 2. 14일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둔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수급 변화 3.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등 미국 AI 주 강세가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월 FOMC 영향권에 진입하기 연준 정책 전환 시점을 점검하게 만드는 2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헤드라인 CPI가 3.2%(YoY)로 컨센(3.1%) 및 전월(3.1%) 수치를 모두 상회했고, 코어는 3.8%(YoY)로 전월(3.9%)에 비해 소폭 내려갔지만 컨센(3.7%)보다 높게 나오면서 2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쇼크를 맞아버린 실정.

그렇지만 미국 증시가 기존 주도 업종인 AI 중심의 상승세로 마감한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시장은 지난 1월 CPI 쇼크 이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주가에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또 1월 CPI 쇼크 유발 요인 중 하나인 주거비 물가가 2월에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중립 이상의 재료로 받아들인 모습(12월 6.2% → 1월 6.0% → 2월 5.7%), 에너지 물가의 상승 역시 일간 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국제 유가 흐름을 통해 일정부분 예방주사를 맞아 왔던 것으로 해석 가능.

이처럼 인플레이션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소화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노이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 여전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흐름이 불안정한 가운데, 클리블랜드 연연의 인플레이션 추정 모델 상 2월 CPI 발표 이후 3월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가 각각 3.29%에서 3.33%대로, 3.69%대에서 3.73%대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

이는 단기간에 인플레이션 불안을 완전히 소멸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 지난 3월 초 파월 의장이 상하원 증언에서 금리인하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식의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보기 원한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참고해볼 필요. 이제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노이즈를 떠안은 채, 3월 FOMC라는 주요 변곡점을 치러야 하는 상황. 2회 연속 CPI 쇼크를 확인한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인하 시점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보수적인 입장으로 선화할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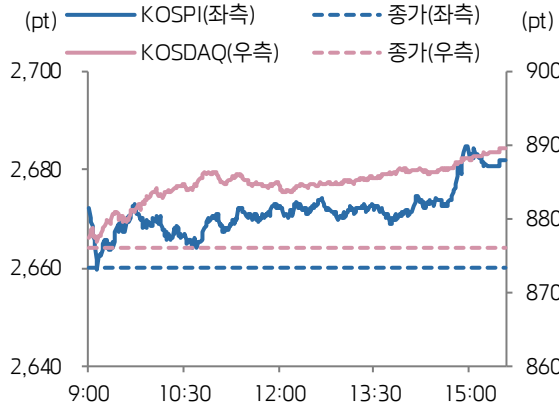
일단 CME Fed Watch에서는 “6월 인하 시작 + 연내 3~4회 인하” 컨센서스가 유지되고 있으며, 12일 로이터의 경제학자 대상 서베이에서도 “6월 인하 시작 + 연내 3회 인하” 전망이 대다수. 당사 역시 6월 인하 시작, 연내 3~4회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불안이 있어도 연말까지 길게 놓고 봤을 때 디스 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만큼, 3월 FOMC가 쇼크 수준의 매파로 끝나지 않는 이상에야 이 전망은 훼손되지 않을 것.

결국 지금 주식시장에는 “주 후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증시 과열 우려, 인플레이션 노이즈 vs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유, AI 주 반등 및 차주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 기대감” 같이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고 있음. 따라서 차주 예정된 3월 FOMC 전까지는 지수 방향성 베팅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포지션 베팅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는 눈치 보기 장세가 수시로 출현 하면서 증시 내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2월 CPI 관망심리에도, 미국 테슬라 및 애플 주가 반등에 따른 이차전지, 메모리 반도체 등 IT 업종으로의 순환매 장세가 전개되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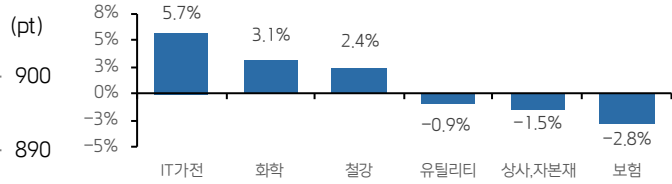
금일에는 달러 강세, 금리 상승에도, 2월 CPI 쇼크를 중립 이상으로 소화한 미국 증시 강세 효과에 힘입어 대형주 중심의 반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업종 관점에서는 엔비디아(+7.2%), 슈퍼마이크로(+7.7%) 등 미국 증시에서 AI 주들이 AI 서버 수요 증가에 오라클(+11.8%)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동반 강세를 연출한 만큼, 최근 국내 증시에서 단기 주가 부침 현상이 있었던 HBM 등 AI 관련주들의 수급 여건을 호전시켜 줄 전망.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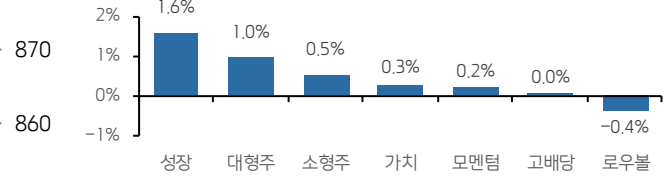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